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2차 공청회 회의록

(’17. 11. 27.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

1 행사개요

-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 14:00~18:00
- (장 소) THE PLAZA 호텔 Grand Ballroom A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
- (참 석)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관련 학회,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인 등 100명 내외
- (주요 내용)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반영

행 사 사 진



2 회의내용

□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안) 발표

- 제2기('08 ~'16) 평가를 통해 뇌연구 관련 예산의 증대와 우수 논문과 특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5건의 미미한 기술이전과 뇌연구 관련 인력/일자리의 부족
- 뇌연구는 미래성장 동력 에너지로 해외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의 뇌지도 사업과 ICT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中
- 뇌연구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한 범부처의 균형 잡힌 투자와 민간차원의 지원 필요
- 앞으로의 10년은 뇌연구의 도약기로 기술혁신을 통한 인간 대상의 뇌연구 확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따른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뇌연구를 중점방향으로 수립
- 3대 추진전략으로 융합연구 역량 강화와 미래 대비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창의적 연구 역량 강화, 실용화촉진 체계 확립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실용화를 위한 기반구축 그리고 문제해결 중심 연구 관리 강화와 연구개발 네트워크 고도화가 포함된 연구개발 시스템의 고도화로 설정

□ 패널 토의 내용

○ 패널 1

-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뇌연구의 위상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계획과 우선순위 필요
- 장기간 투자와 산학연 협력의 건전한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산업화 성과의 가시화 가능

- 민간(민간자금, 대기업 펀드, 창업 등)참여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필요

○ 패널 2

- 뇌연구의 Index 필요
- 뇌연구의 융합을 강조할 4대 분과별(뇌신경생물, 뇌의약학, 뇌인지, 뇌공학)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 패널 3

- OECD 국가들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Innovation for Society) 과학기술의 방향 전환 中
- 상업화/실용화 연계를 위한 생태계 기반과 규제 완화 필요
(예) FDA의 미국 브레인 이니셔티브 참여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으로 수요와 공급의 조화
-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 고려와 윤리적 고찰
- 인간의 감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개발 추천
- 연구개발 착수/진행 시 산업계의 의견수렴

□ 질의응답 내용

① 뇌연구 인력 및 일자리 창출

- 뇌연구 전문 학과과정과 우수한 연구소가 있으나 포스닥에 대한 커리어 중심의 지원체계가 미미함
- 아카데미 이외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 (뇌연구의 산업화와 연계)
- 원천기술, 응용 그리고 시장이라는 순차적 진행보다 기존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화 가능 또는 상업화 가능성을 보고 기초연구의 투자 유도
- 임상과 기초연구의 연계강화를 통한 양방향 일자리 마련

② 국민들에게 뇌연구의 필요성과 기술의 수용성

-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 두려움 그리고 거부감에 대비하여 뇌과학 기술을 친숙하고 유용하게 만들어야함
- 연구개발 시 수용성을 위한 홍보 고려 (윤리적 고찰보다 수용성을 먼저 고려)
- 산업화를 위한 대중적 관심과 동기가 필요
- 뇌질환 극복을 넘어 국민의 건강한 뇌와 삶의 질 향상 추구

③ 빅데이터 구축

- 특정 뇌질환을 제외하면 국가적 데이터가 부족
- 알고리즘/툴엔진 개발은 되어있으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
- 뇌관련 정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예)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수집으로 신사업 아이템 획득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동물모델 개발을 통한 기전연구: Reverse Research
- 개인 맞춤형/정밀의학으로 발전에 필수요소